여신금융協, 차기회장 이동철 낙점

(前 KB금융지주 부회장)

수익성 개선·신사업 발굴 등 기대

2010년 이후 두 번째 민간 출신
이 후보자, KB금융 주요보직 거쳐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과제 산적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이 전 부회장을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로 발탁했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열리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제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LLM)을 마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KB금융그룹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업계 정통 금융인으로 자리매김했다.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상무, KB생명보험 경영기획본부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지난 2010년 이후 민간 출신이 여신금융협회장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취임한 KB국민카드 사장 출신인 전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제외하면 여신협회 회장직은 모두 관 출신이 맡아 왔다.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포함해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후 이날 2차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 3인을 대상으로 약 40분간 프리젠테이션(PT)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후보자가 여신업계의 수익성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재직 당시 수익성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며 성과를 낸 바 있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시절 이 후보자가 일군 수익만 총 8581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재직 당시 이 후보자가 내부에서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리더십, 업무 추진력을 갖췄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현재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체율 상승, 조달 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신사업 발굴 역시 차기 여신협회장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美·이란 협상 지속… 국제유가 소폭 하락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국내유가 정부 공고 상한선 안팎 유지

지난 2일 서울 한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표시 되어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습으로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양측의 협상 지속 의사 표명에 따라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속에서 고가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4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6월 3일 장마감 기준 국제 원유 가격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브렌트유(Brent)는 배럴당 97.39달러로 전일 대비 0.4% 내렸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2% 하락한 95.80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유가 변동 요인에 대해 "미-이란 간 상호 공습 등으로 전일(3일) 유가가 상승했으나, 양측의 협상 지속 추진 의사 표명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 가스 가격은 전일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아시아 가스 가격(JKM)은 백만Btu당 19.01달러로 2.4% 올랐으며, 유럽(TTF)은 1.4%, 미국(HH)은 1.3% 각각 상승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달 들어 등락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4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10.38원으로 전일 대비 0.009%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70원으로 전일 대비 0.014% 소폭 하락했다. 중동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8.78%, 경유는 25.51% 오른 상태다.

현재 국내 유가는 정부가 공고한 상한선 안팎에서 멈춰 서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0시를 기해 6차 리터당 최고가격으로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내 높은 수준이다. 최고가격은 2차 조정 당시 1차 대비 리터당 +210원 조정한 이후, 4차례 동결한 바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가운데, 6월 2일 기준 휘발유(165.70엔)와 경유(155.30엔)가 전일 대비 각각 0.12%, 0.19% 소폭 올랐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7.67%, 9.75% 오른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6월 3일 기준 휘발유가 갤런당 4.261달러(0.68% 하락), 경유가 5.411달러(0.39% 하락)로 떨어지며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했다. 전쟁 이전 대비로는 각각 42.99%, 43.91% 상승한 상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원달러환율 1530원대 진입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서 원달러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30원대에 진입했다. /뉴시스

구윤철 "환율 과도한 쏠림 발생 땐 즉각 대처"

외환시장 변동성 관련 대응책 논의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추진

정부가 횡보하던 환율의 추가적 상승 관련해, 필요시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외환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1530원대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맞서 유관기관 수장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과 외국인 주식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주가 급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적 비중 조정 및 차익 실현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제10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신선란 추가 수입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소방수라는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농축수산물 수급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방안과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선란 2000만 개와 육용종란 1700만 개를 추가로 공급한다. 석유최고가격제(가격 상한) 관련해서는, 그간의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산 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학 창업기업 급증… "성장사다리 필요"

매출·수익 확보 난항… 자금공백 반복

국내 대학 창업 기업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늘었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이 발표한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단계별 제약요인 진단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창업 담당 교원·직원 수는 같은 기간 약 700명에서 2200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창업 관련 강좌 수와 이수자 수도 각각 6배, 3배 증가했다.

생존율도 높았다. 2015~2019년 설립된 대학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4%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3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4%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생존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약 26%로 미국 40.9%, 영국 61.0%보다 낮았다. 기술이전 이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비율도 2019년 26.6%에서 2023년 19.2%로 떨어졌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 창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차 1.2%, 2년차 1.3%로 소폭 흑자를 유지했지만 3년차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5년차에는 영업이익률이 -3.3%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매출은 1년차 대비 약 75% 늘었지만 비용은 약 83%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연구진은 대학 혁신창업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두 번의 죽음의 계곡'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기술 실증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정부 지원은 줄고 민간 투자는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구간이다. 두 번째는 초기 생존 이후 시리즈A 등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해 스케일업이 막히는 구간이다.

단계별 제약도 뚜렷했다.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교원 업적평가가 학술활동 중심으로 이뤄져 창업 성과 반영이 부족했고, 학생 창업휴학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기관 비중이 16.9%에 그쳐 기술의 권리 보호와 가치평가, 거래 협상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후속 투자 공백이 문제로 꼽혔다. 후속투자·회수 단계에서는 기업공개(IPO)에 치우친 회수 구조와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로 인수합병(M&A) 등 중간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통해 대학 창업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